

‘47석 좁은문’ 비례대표 大戰

여야 후보자 선정 실무작업 본격 착수

더민주 228명 신청...새누리·국민의당 공모

여야가 모두 47석이 배정된 4·13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공모를 받았으며, 8일부터 228명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심사에 돌입했

다. 더민주 비례대표는 청년·노동·전략(취약)지역·사무직당직자 등 4개 분야별 8명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유능한 경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사회적 다양성 등 4개 분야에서도 비례대표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비례대표 총 의석이 줄어들었다 당무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결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관한 면접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9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받는 등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 심사는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의정활동 수행 능력,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발전시킬 전문적 소양,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 등 5가지 기준을 정해냈다. 당규에 따라 비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8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모가 발표됐다. 최근 공천률을 둘러싼 계파 갈등, 살생부 파문, 당 비공식 여론조사 유출 사태 등을 겪으며 계획보다 늦게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애초 지도부에선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일정 탓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같은 뼈대한 일정 때문에 당이 내세웠던 비례대표 ‘개혁 공천’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비박계의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요구에 대해 “당헌에 없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비례대표도 잘 선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이) 나온 거잖나”라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 25석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21석 ▲자유선진당 2석 ▲통합진보당 6석을 가져갔다.



대구 간 더민주 김종인대표 (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대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구 수성구에 출마한 김부겸 예비후보. /연합뉴스

19대 국회 사실상 막 내렸다

여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야 “쟁점법 수정없인 불가”

새누리당이 9일 본회의 개최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4·13 총선 전 국회 소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2월 임시국회도 겨우 이를 남았다”며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보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 하고 11일 사이

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태로는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거법(과거근로자 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겠나”라며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도 “소집해본들 처리할 안전이 있나”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운찬 “정치 참여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합류 요청을 받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8일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면자료를 통해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치 참여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직급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꿈조차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을 위한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하지만 지금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그 꿈을 버리는 일이 될 것 같다”며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모아 사회활동을 통한 동반성장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4·13 총선 현장

임내현 “3년전 유머 발언 해프닝 화해 청한다”



국민의당 임내현 복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최근 공개면접에서 3년전 유머 발언 해프닝이 또다시 거론된 것과 관련 “새 정치를 생명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일인 만큼 앞으로 다시는 저를 공격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비판하신 분들은 물론 상대방을 알고도 비난하신 분들도 화해를 청한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야권 단일화로 정부·여당 심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8일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에 국민의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야권분열로 여당이 개헌 가능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개헌 가능한 의석 수를 차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대타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경환 “마을공동체 확대...성장동력으로”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8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선 자립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구는 지난해 기준 예산 4억 원으로 67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마을과 마을, 마을과 공동체, 네트워크간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노후 하수관거 정비·교체해야”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는 8일 “남구 주월동·진월동·송암동 등 원도심 노후 불량하수관거(정화조) 정비 및 교체를 통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반드시 국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관거 보수·정비 및 오래된 하수관거(정화조)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훈모 “장애인 학비 지원·의무 고용 추진”



국민의당 손훈모 순천 예비후보는 8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위상을 격상, 장애정책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장애를 지닌 이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을 정비, 장애인 관련 복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 학비지원과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기업 5% 의무고용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진태 “공공기관 여성차별지수 도입하자”



국민의당 이진태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8일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차별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57.0%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별·장애·출신지역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주요 차별유형별 차별지수를 개발, 매년 국가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 조사·발표하는 차별지수 도입안을 제시했다.

임한필 “민형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임한필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8일 당내 불공정 경선 의혹과 관련,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형배에 대한 검찰 고소 등과 관련, “해당 수사기관은 민형배의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이용민 예비후보, 김광관 구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정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정책 지원”



국민의당 김유정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8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지원과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 차원의 콘트트 타워를 설치해 국가와 기업들에게 경력단절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홍진태, 자산유원지 활성화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선거사무소에서 산수동·자산동 주민들과 ‘자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민들의 숙원인 제2순환도로와 자산유원지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과 자산유원지 주변 자연녹지·취락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자산유원지 관광벨트와 하지는 주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형근 “동구 재개발 15곳 차질없이 추진”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도심 공동화 현상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15개 지역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과거 동구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계림3구역, 계림4구역, 계림8구역, 산수1구역, 학동4구역 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무엇인지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순천=김은종기자 golee@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